‘홍어 바이크’ 타고 삼학도 한 바퀴

‘시장 역사문화 투어’ 목포 찾는 관광객 인기몰이

페달 밟으며 오순도순… 삶의 애환 깃든 현장체험

지난 2일 찾은 목포시 동명동 종합 수산시장. 일제 때 수협 공판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어시장이 형성돼 100년 전통을 자랑한다. 이 시장의 3대 명물은 홍어·젓갈·건어물이다. 이 가운데 ‘홍어’가 단연 유명하다.

홍어를 테마로 삼아 특수 제작된 ‘홍어 바이크’를 타고 삼학도를 한 바퀴 둘러보는 ‘시장 역사문화 투어’가 최근 목포를 찾은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홍어 바이크’는 독일 최대의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의 ‘비어 바이크’를 벤치마킹한 이색 자전거다. 자전거 페달을 굴리는 만큼 속도가 나는 친환경 자전거로 최대 시속 30㎞에 달한다. 6~10명이 탈 수 있고 서로 마주보고 앉아 오순도순 정담을 나눌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목포 종합 수산시장을 출발한 ‘홍어 바이크’는 페달을 돌리는 힘겨운 숨소리와 함께 20분 만에 삼학도 마리너항에 도착했다.

동승한 관광 해설사 곽석희씨가 감칠맛 나는 사투리를 버무려 가며 들려주는 유달산의 유래와 삼학도 전설 등을 듣는 재미가 쏠쏠하다. ‘홍어 거시기’ 등 홍어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는 웃음을 자아내는 양념이다.

목포 종합 수산시장을 출발해 삼학도를 돌아오는 ‘홍어 그린 바이크’. 목포 시티투어와 연계 운행돼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투어에 참여한 박청자(61·원산동)씨 가족은 “목포 마리너항에서 삼학도와 홍어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니 아는 얘기지만 새롭다. 바람도 쐬고 갯내음도 맡으면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라며 웃었다.

바이크 리더를 자임한 김현우 사업단 사무국장은 ‘시장 역사문화 투어’의 인기 비결에 대해 “목포 역사문화와 함께 시장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깃든 현장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데 있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이끌고 있는 정삼조 단장은 “목포 종합 수산시장을 널리 알리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면서 “교육적 효과와 오락적 효과가 결합된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관광객과 어린이는 물론 다문화 가정 등에도 목포의 멋과 맛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인 ‘홍어 바이크’가 내년에 목포시로 이전된 이후에도 계속 운행돼 목포의 명물로 자리매김 됐으면 하는 게 마지막 바람”이라고 말했다.

‘홍어 바이크 투어’는 매일(일요일 제외) 오후 1~6시 사이에 2~3회 운영된다. 시티투어와도 연계돼 외지 관광객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매회 해설사가 동행하며 30분~1시간 정도 소요된다.

2012년 중소기업청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일환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식 블로그(naver.com/hongamarket) 또는 전화(061-242-5045)로 사전예약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목포 종합 수산시장의 또 다른 매력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토요 야(夜)시장’이 꼽힌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광양시 전어잡이 노래’ 민속예술축제 최고상 최근 광양시 광양 국민체육센터서 열린 제38회 전남 민속예술축제에서 ‘광양시 전어잡이 노래’가 일반부 최고상인 으뜸상을 수상했다. 일반부 버금상은 ‘여수 현천 용천제와 용줄다리기’가, 청소년부 으뜸상은 ‘진도 강강술래’가 차지했다. 〈광양시 제공〉

광양 금호동 빌라 붕괴위기

지반침하로 건물 한쪽 균열… 입주자들 ‘불안불안’

市·시공사, 안전불감증 심각… 뒤늦게 복구 약속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M 빌라 1개동이 지반 침하로 인해 건물 한쪽이 심하게 균열되면서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

이곳 입주민들은 건물 균열 간극이 갈수록 커지자 ‘불안해서 편히 발 펴고 못살겠다’면서 최초 시공했던 포스코와 광양시, 주택관리 사업소 등에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반침하 원인은 지난 1987년 시공당시 건축물의 지반을 안전하게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최근 2~3년 사이 급격하게 균열 속도가 빨라지면서 주민들이 극도로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축 전문가인 A씨는 “M 빌라의 경우 먼저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후 결과에 따라 기초보강 또는 원상복구 등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육안으로 확인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현 입주자의 안전이 염려된다”고 밝혔다.

입주자 L(44)씨는 “주택관리소에 수차례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점검후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어 답답하다. 제대로 된 인증기관의 진단을 받아 철저한 시공이 선행돼야지 예산을 핑계로 임시방편으로 땜질 시공하면 안 될 것”고 말했다.

광양제철 주택관리 관계자는 “보수가 시급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자가진단 및 시공을 위해 2000여 만원의 예산을 세워 시공사를 찾고 있으나, 시공비가 턱없이 부족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주택관리소 차원을 넘어 다각도의 방안을 찾아 완전한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광양시나 포스코 광양제철 관계자들이 M 빌라의 붕괴 위험을 사전보고 등을 통해 인지하고도 ‘나몰라라’ 해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M 빌라는 39개동 460여 세대가 생활하고 있으며, 문제의 동은 3층 건물에 12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김수공 농협 농업경제대표 “김장채소 수급·가격안정 최선”

나주·영암서 현장 점검

올해 배추와 무 생산량이 줄어 ‘김장 물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김수공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는 지난 2~4일 사흘간 나주, 영암 일대의 배추밭을 찾아 김장채소 수급동향을 파악했다.

통계청이 내놓은 ‘2012년 가을배추 및 가을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만3408ha로 지난해(1만7326ha) 보다 22.6% 줄었다. 무 재배면적 역시 지난해보다 30% 줄어든 6826ha로 나타났다.

올해 배추 재배면적이 크게 줄어든 데는 지난해 가격폭락으로 인해 재배면적이 대폭 줄었고, 8월 하순 잇따른 태풍 등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와 재배면적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공〈사진 중앙〉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가 지난 2~4일 전남지역 배추재배 현장을 찾아 작황을 살펴보고 있다.

김수공 대표이사는 “김장채소 계약재배 물량확대와 출하조절, 겨울배추와 월동 무 계약물량 조기출하, 임시 김장시장 개설, 농협매장 할인판매, 회원조합 절임배추 예약판매 등을 펼쳐 김장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기관

전남도 선정

전남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2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 행정기관’에 선정됐다. 전남도는 4일 “그동안 공무원 노사문화 개선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을 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신청해 노사문화 우수 행정기관으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노사문화 인증제는 행정안전부에서 건전한 노사 관행과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취지로 2010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올해는 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대학 등 각급 기관으로부터 지난 7월 신청을 받아 3차에 걸친 심사 끝에 전남도 등 13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인증으로 전남도는 정부의 합동 평가시 가점우대를 받고, 우수사례는 책으로 제작돼 전국 행정기관에 배부된다.. /오광록기자 kroh@

여수 경도골프장, 대중제로 전환

전남개발공사, 회원권 반환… 공사지연 등 악재 겹쳐

전남개발공사가 운영중인 여수 경도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뀐다.

4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여수 경도 골프장&리조트 조성사업의 핵심인 골프장 운영방식을 애초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원권을 구입한 100여명에게 안내문 발송과 함께 회비 반환 절차에 들어갔다. 회비 반환시에는 원금에 법정이자 6%를 얹어 지급할 예정이다.

개발공사는 지난해 9월 창립 회원권(개인 1억2000만원, 법인 2억3000만원) 판매에 들어가 102명에게 모두 140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하지만 공사 지연과 경기침체, 채산성 문제 등이 얽히면서 회원제 운영에 한계를 느껴 대중제로의 전환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도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으로 개발공사는 올해 목표로 잡은 콘도 및 골프장 회원권 분양 907억원 매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1년 만에 회원제 방식을 포기함에 따라 경영 신뢰성에도 타격을 입게 됐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지난 9월 3차례 태풍 내습 등으로 공사가 많이 지연됐다”며 “대중제 골프장으로 성공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도 골프장&리조트는 경도 일대 216만㎡에 4400억원을 투입해 2016년까지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콘도를 비롯해 호텔, 마리나, 오토캠핑장 등 해양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 6월 착공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